

한달간 76조 팔더니... 하루새 2.7조 담았다 '외인의 귀환'

종전 기대감... 반도체株 '사자'

美 트럼프, 종전 서명식 등 거론 이란도 '타결 임박은 사실' 밝혀 내년 메모리 부족... 가격 오를 듯 삼전·하이닉스 등 아직 '저평가' 유럽·日 등 주요국 금리인상 북병

지난 12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달 넘게 이어온 '코스피 팔자' 흐름을 멈추고,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2조7000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끌어 담았다. 외국인들은 이달 초 코스피가 9000선을 향해 맹렬히 진격할 때도 한국 주식들을 거의 매일 내다 팔았고,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만 31조원(5월7일~6월12일) 넘게 자금을 빼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이 임박한 가운데 외국인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대규모 매수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가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 국면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미·이란 종전 기대감, 외국인 돌아오나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12일 코스피 시장에서 2조204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날 매수세는 반도체 종목을 압도적으로 끌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1조2882억원, SK하이닉스를 9716억원어치 순매수했다. 두 종목을 합산 순매수액만 2조2598억원에 육박한다. 개인이 삼성전자(1조9799억원)와 SK하이닉스(6744억원)를 차익실현하며 빠져나



코스피가 전 거래일(7763.95)보다 359.67포인트(4.63%) 오른 8123.62에 마감한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뉴시스

가는 모습을 보습과 대비된다.

이는 지난 한 달여 동안 볼 수 없었던 움직임이다. 외국인들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코스피에서 75조956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 기간 삼성전자에서 빠져나간 외국인자금만 약 31조9767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주식 역시 29조504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높은 수익률을 안겨다 줄 한국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주말 중이나 내주 월요일(15일)에 MOU 체결 서명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란도 MOU 잠정 합의를 확인하면 서,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타결이 임

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으며, 종전 협상 중재역을 맡은 파키스탄의 세바즈 사리프 총리는 "최종 합의문(Final, agreed up on text)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종전 MOU에는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한편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 비핵화와 제재 완화 문제에서는 양측의 발언이 엇갈리며 막판까지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국증시 수익률도 가파르다. 코스피는 올해 선진국들을 제치고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증시 상승률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 폭발적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6월 현재 고객사들의 2027년 수요 전망을 감

안하면, 내년 메모리 공급은 올해보다 더 부족해질 것"이라며 "현재의 공급 부족은 단기 가격 상승 요인에 그치지 않고, 실적상향과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동시에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AI 인프라 핵심 공급망에 위치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등의 주가는 아직 절반도 오르지 않았다는 평가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관찰대상국(위치리스트)에 편입될 가능성도 커졌다. 코스피 1만 100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는 노무라증권은 한국이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위치리스트)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60% 수준으로 제시했다. 오는 24일 새벽 MSCI는 '연례 시장 분류 리뷰'를 발표한다.

◆금리 인상 및 빅테크 회계이슈가 북병 그러나 곳곳에 북병도 있다.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금리 인상이다. 글로벌 각국은 중동전쟁발 물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 국면에 한 발 더 다가선 상태다.

시장에서는 케빈 워시 신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16~17일)에 주목한다. 유럽중앙은행이 최근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일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워시 의장이 내놓을 발언에 따라 주식시장이 널뛰기를 보일 수 있어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은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3.50%~3.75%에서 동결될 가

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경제전망, 특히 금리 전망에 대한 부분과 워시의 첫 기자회견에 주목 중"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AI) 거품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오리클이 11일 내놓은 2026회계연도 4분기(2026년 3~5월) 실적은 '서프라이즈' 수준이었다. 매출 129억달러는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난 수치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조정 주당순이익(EPS)도 2.11달러로 같은 기간 24% 증가했다. 하지만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 한때 10% 이상 급락했다. 오리클의 '사상 최대 실적 기록 후 주가 급락'은 빅테크 전반으로 번지는 회계 논란과 맞닿아 있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도 회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엔비디아는 최근 1분기 매출이 816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5% 급증했다고 밝혔다. 같은 분기 매출채권은 407억1000만달러로 불었다. 오픈AI가 엔비디아 칩을 외상으로 사며 매출이 늘고, 오픈AI 기업가치 상승에 따라 엔비디아 자산도 늘어나는 구조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연준의 정책 기조를 확인한 이후 방향성이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라며 "빅테크의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확인될 경우 반도체, 전력기기, 원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투자하는 AI 인프라 투자 전략이 재차 유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유가 급락 했지만... 한은, 금리 인하엔 '신중론'

브렌트유 87.33달러, 3월초 이후 최저 한은 '원화 약세' 핵심 불확실성 지목 금리 경로, 완화보다 '경계' 가까워

미국 소비자물가를 4%대로 끌어 올렸던 국제유가가 미·이란 종전합의 기대 속에 급락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의 물가 선행도 다시 흔들리고 있다. 다만 합의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데다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와 원·달러 환율 불안이 남아 있어, 유가 하락이 곧바로 금리 인하 명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제금융시장에 따르면 브렌트유 선물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배럴당 87.33달러에 마감했다. 전 거래일보다 3.05달러, 3.37% 하락한 수준으로 3월 초 이후 최저치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

(WTI)도 배럴당 84.88달러에 거래를 마치고 2.83달러, 3.23% 떨어졌다.

유가를 끌어 내린 것은 미·이란 종전 협상 진전 기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이란과의 합의가 일요일 서명될 예정이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美 물가 끌어올린 에너지

유가 하락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미국 물가 급등의 핵심이 에너지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4월 3.8%에서 더 높아져 4%대에 재진입했다.

물가를 끌어 올린 주된 요인은 에너지였다. 5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3.9% 올랐고, 휘발유 가격은 한 달 새 7.0% 뛰었다. 미국 노동부는 에너지가 월간 CPI

상승분의 60% 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중동 긴장과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소비자물가로 빠르게 전이된 것이다.

반대로 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면 6월 이후 미국 물가 경로에는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연준 입장에서도 유가 방향은 물가 전망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한은 인하 명분은 약해

국내경제에도 유가 하락은 분명 호재다. 한국은 원유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석유류와 공업제품, 운송비, 서비스 가격으로 이어지는 비용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 최근 국내 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선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안정은 물가 상방 압력을 낮추는 요인이다.

하지만 한은이 곧바로 금리 인하 쪽으로

움직일 환경은 아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완화 효과가 환율에서 일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가 내려가도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 원화로 환산한 수입가격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

한은도 이미 유가와 환율을 물가 전망의 핵심 불확실성으로 지목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2.7%로 크게 올려 잡았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은 정책 변수 간 상호 관계에 직면하기 마련이지만, 지금은 그런 상충이 크지 않다"며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



삼성 파운드리, 흑자 로드맵 다시 짠다

흑자시점 1년 미뤄진 2028년 제시 내일부터 사흘간 글로벌 전략회의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가 흑자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선다. 당초 이르면 내년으로 거론되던 흑자시점이 2028년으로 제시되면서, 수익성 중심의 체질 개선이 발등의 불로 떠올랐다. 이에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은 글로벌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사업 재편에 고삐를 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각 사업부문별 글로벌 전략회의를 연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은 16,17일 사업부별로 열리고 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 DS 부문은 18일 전 부회장 주재로 진행된다.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 열리는 정례회의로, 주요 경영진과 해외 법인장이 사업 현황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익성 중심의 수주 전략 재편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사업부가 속한 DS부문 회의에서 선단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력 공정의 사업 기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흑자를 내는 8인치 구형 공정에 대해서도 시장이 레드오션화되고 있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편의 배경에는 사업부장의 진단이 깔려 있다. 한진만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은 지난 12일 사업부 경영현황 설명회에서 "파운드리 사업의 흑자 전환은 내년에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2028년에는 흑자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

는 모바일 중심 사업 구조 탈피 지연, 기술 완성도 부족, 수익성이 낮은 수주 구조, 성숙 공정 운영 전략 미흡 등을 적자가 이어진 배경으로 꼽았다. 이어 "적자를 만든 것은 결국 경영진 책임"이라며 체질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적자요인으로는 특별경영성과급에 따른 비용 부담도 거론됐다. 삼성전자는 최근 노사 합의로 반도체 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신설했다. 이 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이 자사주로 지급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



>> 1면 '1500원 환율...'서 계속

정부, 시장교란 단속에 정상 거래 제약 우려도

이는 환율 추이에 대한 각자의 관측에 따라 수입대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수출대금 회수를 늦추는 방식을 말한다. 환율 상승이 예상되면 달러 결제가 빨라지고 달러 매도는 지연돼, 시장 내 달러 수급의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다.

당국은 일단 정상적인 결제일정 조정은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원화 가격의 추가 하락을 노리고 수입대금을 지나치게 빨리 내거나 수출대금을 일부러 늦게 받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은행권에는 달러예금 유치 경쟁을 자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시중 은행들이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외국환포지션 점검 간격을 기존 월 단위에서 주간 또는 일간 단위로 좁히기로 했다.

한편으로, 당국의 이 같은 엄정 대처 방침이 정상적인 거래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출입기업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선물환, NDF, 외환스와프 등을 활용한다. 은행도 기업의 환헤지 수요를 처리하거나 외화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외환거래를 한다. 리드엔래그 점검도 기업에는 부담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확보, 거래처와의 계약조건, 현지 자금사정 등에 따라 결제 시점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오정근자유시장연구원장은 "시장교란 행위를 점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실수로 거래와 투기적 거래를 정교하게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